

출장보고서

I. 출장 개요

1. 출장건명: 2009 국제농업협력사업 현지 사업수행 결과 평가
2. 출장목적: 라오스 농촌개발시범사업 평가
3. 출장지역: 라오스 브엔티엔 주 폰홍군(Phone Hong District)의 폰숨본 마을 및 폰탄 마을
4. 출장기간: 2009. 12. 8. ~ 12. 12.
5. 출 장 자

부서명(기관명)	직 급	성 명
글로벌협력연구본부	초빙연구위원	배 중 하

6. 출장일정

일 정	주요 활동내역	비 고
12.8~9	서울 출발, 라오스 도착(방콕 경유)	
12.10~11	라오스 비엔티엔주 2개 마을 방문	
12.12	라오스 출발, 서울 도착	

7.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

- 현지 면담자: 싱캄 콩사반 비엔티엔 주 투자계획국장, 캄사이 수몬통 투자계획국 자문관, 마을 현장 이장 및 주민들
- 방문지역: 비엔티엔 주 청사, 폰숨본 부락, 폰탄 부락

II. 주요 출장 결과

<라오스 시범사업 평가>

가. 적절성

- 농촌빈곤 탈피가 라오스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중의 하나인 바 농촌발전전략 수립은 반드시 필요
- 농촌개발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개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권

선택과 계획 수립을 지원

- 빈곤을 해소하고 농촌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

나. 효과성

- 2009년에는 MOU 체결, 사업대상지역 선정, 초청연수, 주민교육, 실행계획 수립,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, 개발계획 승인 등 계획한 사업을 완료
- 마을개발사업을 위한 주민부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인프라를 위한 군 및 주정부 예산 확보
- 그러나 시범마을은 2개 지역이고 비엔티엔 주에 집중되어 있어 라오스 전역에 대한 확산 효과 미미
- 기본적인 인프라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 근본적으로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소득창출원 마련은 미흡

다. 효율성

- 어려운 현지 여건을 감안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나 2009년 사업예산 전액을 계획 수립에 쓴 것은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
 - 특히 용역수행기관의 인건비 지출 비중이 높음
- 수립된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010년부터 구체적인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정 예산을 수립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
- 예산 확보 계획은 있으나 현지의 의견(한국 정부의 사업 예산 지원 요청)과 보고서의 의견(주민 및 현지 정부 부담)에 차이가 있어 예산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

라. 영향력

- 새마을 운동 방식을 적용한 마을개발을 확산시킬 경우 한국의 농촌개발 사례의 전과 효과는 클 것임
- 마을 개발로 마을 주민의 인식이 전환되고 다른 마을로 확산될 경우 라오스 농촌개발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임.

마. 지속가능성

- 사업 종료 후에도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을개발사업을

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 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 필요

- 마을 자원의 관리방식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체계 구축할 필요
- 마을 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인식 향상이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한 교육 지도 필요
- 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을 경우 개발을 일과성에 그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 있음.